

| 2일 Market Index | | | |
|-----------------|-----------|-------------|----------|
| ↓ 코스피 | 5234.05 | ↓ 코스닥 | 1056.34 |
| | (-244.65) | | (-59.84) |
| ↑ 금리 (미국 3년) | 3.477 | ↑ 환율 (원/달러) | 1514.80 |
| | (+0.107) | | (+13.50) |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4월 3일 금요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기대감이 꺾이며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 마감한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5478.70)보다 244.65포인트(4.47%) 내린 5234.05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116.18)보다 59.84포인트(5.36%) 하락한 1056.34에 거래를 마쳤다. /뉴시스

트럼프 “2~3주간 이란 극도 강타 韓·日 등 호르무즈 스스로 지켜라”

이스라엘과 협의 여부 거론안해 “협의 없으면 발전소 강력 타격” 국제유가 전날 하락분 반납 ‘급등’

백악관의 자국민 설득 연설이 2일(한국시간) 오전 전파를 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식의 주문을 했다. 전 세계가 지켜본 가운데, 전쟁 상대국 이란에 대해 일단 강경 입장으로 표면적 선회를 택했다. <관련기사 2·3면> 트럼프는 이날 중·하순쯤이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동맹 전선에 가담 중인 이스라엘과의 협의 여부는 거론하지 않았다. 백악관·미군이 임의로 내건 시간표일 수도 있다. 그는 “향후 2~3주간 이란을 상대로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퍼붓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과의)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협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발전소 등 목표물을 매우 강력히 타격할 것”이라고 했다.

지국 내 유가 등 물가 상승에 따른 불만을 달래려는 언급도 했다. 그는 “분쟁이 사라지면 호르무즈 해협이 자연스럽게 개방될 것이다. 그리 되면 기름값이 급락하고 주가는 급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가 폭등 관련해서는 이란 탓으로 돌렸다. 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인 선박들을 이란이 공격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뤄 온 진전 덕분에, 오늘 밤 본인은 군사적 목표에 매우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

O)와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불만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중동산 원유 및 가스 수입에 의존 중인 국가들을 향해 “미국에서 석유를 구입하거나 스스로 해협을 지키길”을 제안했다. 또 “뒤늦게라도 용기를 내라. 그 해협에 가서 스스로 (석유를) 가져가고 지키고 활용하라”고 말했다.

이날 국제유가는 백악관발 강경 발언에 전날의 하락분을 고스란히 반납하고 크게 뛰었다. 한국시간 오후 4시 기준 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6.29%(6.30달러) 오른 배럴당 106.42달러에 거래됐다. 북해산브렌트유도 상승률 6.68%를 보이며 107.92달러를 찍었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올해 메모리가격 두배 이상 상승 예고 반도체 기업 호황 기대감

빅테크 기업, HBM 등 수요 확대 ‘원가상승’ 완제품 시장, 가격압박

메모리 가격이 세 자릿수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반도체 기업들은 호황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완제품 시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빠르게 전가되며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지는 모습이다.

2일 미국 투자 금융 회사 씨티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강력한 데이터 수요에 힘입어 올해 D램 평균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171%, 낸드플래시 가격은 12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낸드플래시 기반의 기업용 SSD 저장장치 수요는 일시적 호황이 아닌 글로벌 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현상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용량 DDR5 모듈 수요를 크게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메모리 가격 급등은 반도체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반면 완제품 판매 기업에는 원가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출시 후 출고가를 인상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했다. 회사는 지난해 출시된 시장에서 판매 중인 갤럭시 Z 폴드7, 갤럭시 Z 플립7, 갤럭시 S25엣지 등 주요 플래그십 모델의 출고가를 인상을 했다. 모델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용량인 512GB와 1TB 모델을 중심으로 약 10만원~20만원 가량 가격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격 조정을 두고 제조사들이 더 이상 원가상승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특히 온디바이스 AI 기능 고도화로 고사양 메모리와 대용량 저장장치 탑재 비중이 커지면서 일부 프리미엄 모델을 중심으로 가격 부담이 본격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노트북 시장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일 노트북 신제품 ‘갤럭시북6’를 출시했는데, 전작 대비 최대 32% 바싼 가격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 그림 2026프로 AI 모델은 약 310만 원대로 전작 대비 약 19% 상승한 가격에 출시됐다. <3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metro



석유류 가격 9.9% ↑... 물가 2.2% 상승

데이터처, 3월 소비자물가 동향 농산물 하락... 오름세 일부 상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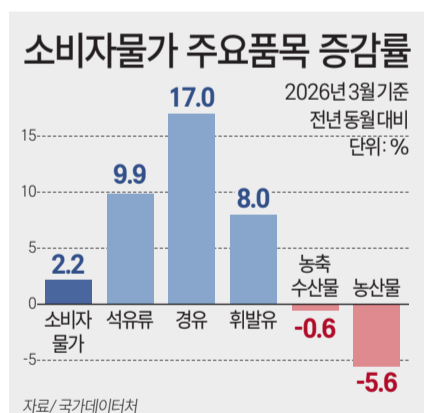
중동전쟁발 국내 물가 여파가 지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이 9% 넘게 뛰며 전체 소비자물가가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휘발유 등 석유류의 상승 폭은 3년5개월 만의 최고를 찍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특히 석유류가 +9.9%를 기록하면서 물가 전반을 0.39%포인트(p) 밀어 올렸다.

석유류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10월(+10.3%) 이래 4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그나마 지난 3월13일 도입된 휘발유·경유 등 대상의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상승폭이 일부 제한된 것으로 풀이된다.

휘발유가 8.0%, 경유가 17.0%, 등유가 10.5% 치솟았다. 경유는 2022년 12월(+21.9%) 이후 3년3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고 휘발유는 작년 1월(+9.2%) 이후 최고 폭이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휘발유 수요는 승용차에 제한되는 반면, 경유는 운송·물품 등에 쓰이다 보니 상승 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가격이 내리면서 전체 물가 오름세를 일정 부분 상쇄했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0.6% 하락했는데, 이중 농산물이 5.6%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25%p 낮춘 것.

서비스 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2.4% 올랐다. 공공서비스(1.0%)는 낮은 상승폭을 나타냈으나 외식(2.8%) 등 개인서비스 가격이 3.2% 올랐다.

/세종=김연세 기자



코스피 4.47%p ‘뚝’... 글로벌 금융시장 ‘초토화’

삼전 5.91%, 하이닉스 7.05% ↓ 외국인 11거래일 간 23조 순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하겠다고 이란을 향해 던진 말 폭탄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초토화됐다.

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47%(244.65포인트) 내린 5234.0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1056.34까지 밀려났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호령 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19일 이후 코스피시장에서 11거래일 연속 순매도했다. 이 기간

에 외국인 팔아치운 주식은 23조 원어치에 달한다.

코스피에선 전체 시가총액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 하락 폭이 컸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는 각각 5.91%, 7.05% 하락하며 17만8400원, 83만 원으로 밀려났다.

일본 닛케이 지수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홍콩 항셱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하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 중 “앞으로 2~3주 동안 이란을 극도로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강경한 메시지를 던진 여파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

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스럽게 개방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원유 수입국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했다.

국제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후 급등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시간 이날 오전 10시53분 브렌트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약 3.9% 뚝 배럴당 105.13달러를 나타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도 같은 시각 103.35달러로 전장보다 3.2% 올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8.4원 오른 1519.7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30분)를 마쳐며 하루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



메트로 한줄뉴스



▲국힘 예결위원,李정부 추경에 “선거용 돈풀기 추경”
▲김영록,함중연횡·포퓰리즘 ‘맹비난’...“내로남불” 재저격 /사진 뉴시스

▲국힘 “‘현금 제공 의혹’ 김관영 제명으로 못 덮어...검경에 수사 의뢰해야”
▲이준석 “‘칸론 출장’ 정원오, 혐오 프레임 숨지 말아야”

▲구윤철, ‘달라 강제 매각’ 유포·가담자 고발... “가짜뉴스 용납 못해”
▲‘대학·취업 특혜’ 김병기 차남, 피의자 조사 3시간20분 만에 종료